

[5] 오장육부(2) 심

1. 심(心)의 한방 생리

- 군주지관(君主之官) / 심주혈맥(心主血脈)

- 군주의 영향력과 전신의 혈맥

『황제내경』 「소문」에서는 심장을 ‘군주지관君主之官’이라고 부른다. 군주는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서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중심이며, 그의 영향력이 때론 국운을 좌우하기도 한다. 심장의 역할도 그만큼 막중하다. 【 】은 혈맥血脈을 주관한다. 거칠게 보면 혈맥은 혈관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혈관은 심장과 이어진 거대한 조직으로 몸 구석구석 그 가지가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은 대동맥을 타고 51억 가닥의 모세혈관으로 흩어지며 조직과 물질을 주고받은 뒤 다시 정맥으로 귀환하여 심장으로 되돌아온다. 몸을 국가로 본다면 이만한 영향력을 주는 통치자도 없을 것이다.

- 군화(君火) = 火 + 水

그래서 심장은 화火에 배속되어 있지만 【 】 불이 아니다. 심장은 혈액이 되면서 고착된 중심이 아니라 유동하는 흐름이 되었다. 불은 번질 수는 있어도 흐르지 않는다. 심장은 중심에서 활활 타는 불이 아니라 혈액을 흐르는 따뜻한 기운으로 존재한다. 그러기 위해서 심장의 화 기운은 【 】과 만나야 한다. 이렇게 물과 만난 심화心火를 【 】라 하고, 심화를 만난 물을 【 】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심장은 기운으로는 군화로 존재하고 물질적으로는 피가 된다.

- 상화(相火) = 火

우리 몸에는 뜨거운 불도 있다. 이를 【 】라 한다. 다른 말로 ‘무근지화無根之火’라고 부르기도 한다. 뿌리가 없는 불이라는 뜻이다. 군화는 물에다 뿌리를 내렸다. 그래서 뜨겁지 않다. 상화는 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순수한 불이어서 항상적으로 흐르지 않고 그때그때 확 타올랐다 꺼진다. 군화가 중심을 잃고 항상적 흐름을 획득했다면, 상화는 중심에서 발화되며 화끈하고 일시적이다. 군화는 【 】에서 비롯되었고, 상화는 간, 담, 신장, 삼초 등에서 발화된다.

상화는 군화를 보좌하며 에너지를 서로 조율한다. 상화가 부족하면 기운이 떨어지며 몸이 차가워진다. 일종의 보조 배터리 역할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화의 활동이 너무 과도하면 화기로 인한 질병이 생긴다. 이를 【 】 이라고 한다. 그 증상도 다양하다.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생기고 귀에 이상한 소리(이명)가 들리며 심하면 귀가 먹기도 한다. 때론 가슴이 답답하고 손바닥과 발바닥에 열감이 느껴지고, 꿈이 많아지고, 쉽게 화를 내기도 한다. 무엇보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가볍게는 성욕이 항진되거나 망상이 늘 일어나는 증상이 생기며, 심하면 정신질환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정신과 관련된 것은 상화가 군화를 어지럽힌 탓이다. 심장은 정지를 주관하기 때문에 상화의 망동에 의해 군화가 같이 망동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심주신지(心主神志)

- 신지는 정신활동의 총체
- 군주는 방향성을 통제한다.

- 심장의 구멍과 털 - 열림과 반응

심외 형상(心形象)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심장에 구멍 7개와 털 3가닥이 있다. 보통 지혜로운 사람은 심장에 구멍 5개와 털 2가닥이 있다.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심장에 구멍 3개와 털 1가닥이 있다. 정상인은 심장에 구멍 2개가 있고 털은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1개의 구멍이 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심장에 구멍이 1개 있는데 그나마도 몹시 작다. 구멍이 없는 것은 정신이 드나드는 문이 없다는 것이다. 심장에는 일곱 개의 구멍과 털 세 개가 있다. 일곱 개의 구멍은 북두칠성과 상응하고, 세 개의 털은 삼태성三台星과 상응한다. 따라서 마음의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의학입문醫學入門』 — 心臟

- 심주한액(心主汗液)

- 서(暑)/화(火)

몸에서 화기는 기초 대사를 위한 에너지다. 체온을 유지하고 기혈을 순환시키며 소화와 배설에 관여한다.

- 신(神)

- 심신(心神)은 기초적인 감각과 지각 능력을 발휘한다.
- 심신이 약하면 간의 혼(魂)이 신(神)을 업신여긴다.

- 희(喜)

적절한 기쁨은 오지(五志)와 칠정(七情)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기쁨이 과하면 【 】 을 조장하여 심장의 건강성을 해친다. 심장이 약한 사람은 웃음을 참지 못한다.

- 맥(脈)

심장이 주관하는 조직은 맥이다. 맥은 혈맥, 경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서양 생리학의 혈관과 통한다.

- 설(舌)

심은 구멍은 혀이다. 심의 상태가 혀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심열이 뜨면 설질(舌質) 붉고 혀 바늘이 생기며 구내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 면(面)

심장의 상태는 얼굴에 드러나기도 한다. 심장의 건강성에 따라 얼굴에 핏기가 없거나 반대로 열로 인해 붉게 변하기도 한다.

- 소(笑)

심장의 소리는 웃음소리다.

- 우(憂)

심장의 병변은 근심으로 나타난다. 심장이 약해지면 알 수 없는 근심, 걱정이 생기고 누가 잡으로 올 것 같은 불안함이 나타나기도 한다.

- 한(汗)

심액(液)은 【 】이다.

- 혈륜(血輪)

눈의 구조에서 심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위는 양쪽 눈초리 부위다.

- 심 한방 생리 요약

심장은 오행 중 화(火)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화가 양적으로 퍼지면 열이되고 음으로 모이면 불이 된다. 열이건 불이건, 화기(火氣)는 산포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몸의 동력인 기혈(氣血)도 화기를 통해 움직인다. 기와 혈은 심장의 주도하에 경맥을 따라 전신으로 산포된다. 그래서 심장은 맥(脈)을 주관한다고 하며, 맥도를 따라 흐르는 혈(血)의 색인 적색의 미지를 가지고 있다.

심액의 소리는 웃음이다. 웃음은 기쁨이라는 가볍고 밝은 감정에서 나온다. 웃음은 긴장된

마음을 산포시켜 흩어버리는데 그 모습이 화(火)와 닮았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웃음 대신 근심이 잘 일어난다. 더불어 너무 과도하게 웃음을 참지 못하는 것, 그리고 기쁨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심의 병리적 문제다.

맛에서는 쓴맛(고미)이 심으로 들어간다. 쓴맛은 화에 배속되어 심으로 들어가지만 작용은 차가운 겨울 수(水) 기운으로서 작용한다. 즉 쓴맛은 심장으로 들어가 심장의 화기를 조절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화기가 조절되지 않으면 신(神)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종기가 잘 생기고, 꿈을 많이 꾸며, 땀이 잘 난다. 땀은 화기가 진액을 만나면서 생기는 것이다. 불이 물을 만나 수증기가 되는 것을 떠올리면 된다.

2. 심장의 서양 생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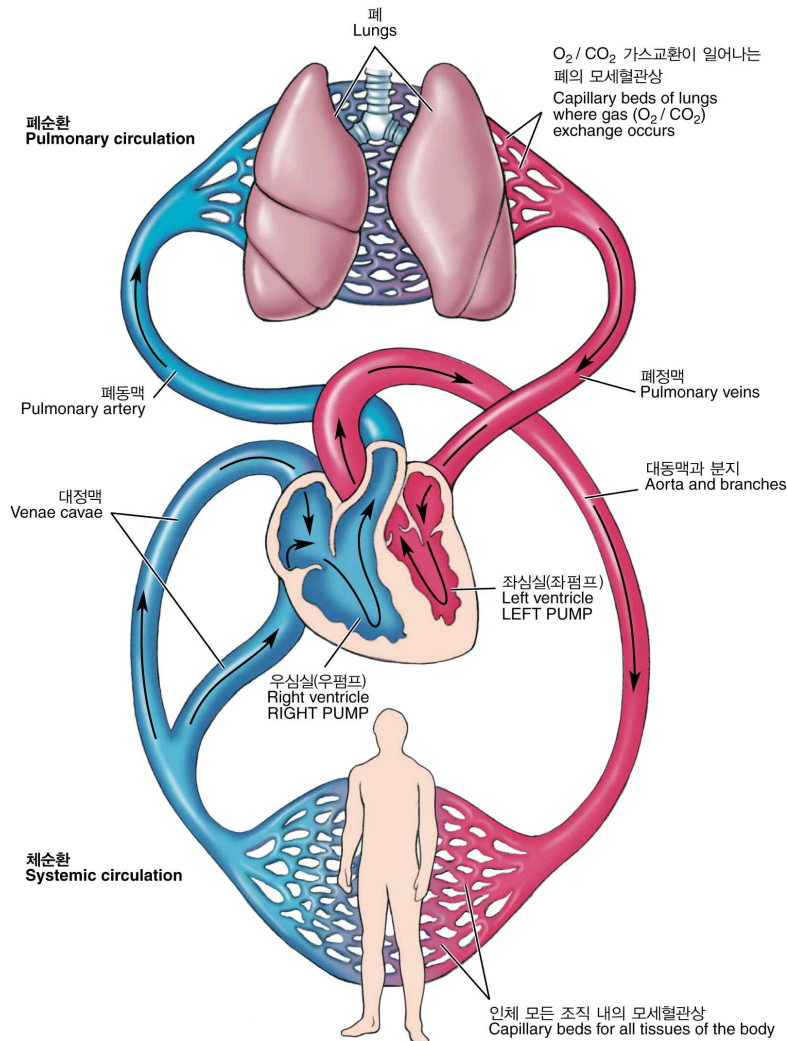


그림 15-3 이중 펌프와 2개의 순환(폐순환과 체순환).

운화도

